

5월 1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5월 1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시소끝 혼조..주택지표 실망	19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시소 장세를 펼친 끝에 혼조세로 마쳤음. 주요 지수는 미국의 4월 주택착공과 건축허가 건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던 시장의 기대를 뒤엎고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로 출발한 뒤 등락을 거듭했음. 이날 주택지표의 부진은 최근 부각된 '주택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낙관론을 훼손시켰으나 미국 은행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 상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의 추가 하락을 방어했음. 세계 최대 개인용컴퓨터(PC) 제조업체 휴렛팩커드(HP)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도 강세를 나타내며 나스닥 상승을 지지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8,474.85로 전일대비 29.23포인트(0.34%) 하락했음.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908.13으로 1.58포인트(0.17%) 내렸음.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34.54로 2.18포인트(0.13%) 올랐음.
美 주택착공-건축허가 '사상 최저'	미국의 4월 주택착공과 건축허가 건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음. 상무부는 4월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연율 45만 8,000채(계절조정)로 전월대비 12.8%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 1959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54.2%, 주택시장의 정점이었던 지난 2006년 1월에 비해서는 79.9% 줄어든 수준임. 주택건설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건수도 사상 최저치였다. 전월대비 3.3% 감소한 49만 4,000채를 기록했음.
中, 페트로브라스와 100억弗 규모 원유공급 계약	페트로브라스는 성명을 통해 "중국 국가개발은행(CDB)으로부터 향후 10년간 1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시노펙에 첫 1년 하루 15만 배럴을 공급하고 나머지 9년간 하루 20만배럴을 송유할 것"이라고 발표. 이날 합의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함께 체결된 투자 계약 가운데 하나임.
日, 지방은행 M&A 가속화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3위 지방은행인 치바은행의 히데토시 회장은 "많은 지방은행들이 비용을 홀로 감수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때가 왔다"며 "대규모 재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 일본 지방은행 87개 가운데 절반 이상은 2008 회계연도에 순손실을 기록

제목	주요 내용
미쓰비시UFJ, 사상 첫 연간 손실	미쓰비시UFJ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 손실 등으로 2008회계연도에 2,570억엔(26억60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 이는 지난 3월 2,600억엔 손실 전망보다 다소 낮은 수치. 미쓰비시UFJ는 그러나 2007회계연도에 6,360억엔의 순익을 거둔 바 있음.
韓 국가경쟁력 4단계 상승..57개국중 27위-IMD	기획재정부는 20 일 `IMD 의 2009 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구축 등 총 4 개 부문 전반에 걸쳐 개선됐으나 경제성과 및 정부효율성 부문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음. 특히 국가경쟁력 상승을 위해 교육 경쟁력, 노동관계, 중소기업 효율성 부문에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마련해야"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소 정책토론회에서 "금융·경제 상황이 정상궤도로 근접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위기 파급과정에서 이뤄진 강도 높은 금융완화가 경제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수축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총재보는 "정책기조의 전환 시기와 조절 속도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달간 주택시장 유입 자금 `3조 5,000억`	부동자금이 800조원에 달하지만 최근들어 주택시장으로 유입된 돈은 투기를 우려할 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오간 곳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인천 청라·송도 분양시장, 만능 청약통장 등이 꼽힘. 최근 한달새 이들 시장에서 오간 돈은 약 3조 5,000억원 남짓.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이 보통 6조원(18일 기준 5조 9,550억원)임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